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 년 8 월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논문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한다솜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on Self-Esteem and
Dance adherence in Practical dance major

2023 년 8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한다솜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서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한다솜

한다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숙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선하 인

2023 년 6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모형 및 가설	4
4. 연구 제한점	6
5. 용어 정리	6
II. 이론적 배경	9
1. 스트럿댄스	9
2. 진로탐색	16
3. 자아존중감	18
4. 무용지속의도	20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조사도구	23
3.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25
4. 조사절차	28
5. 자료처리	28

IV. 연구결과	30
1.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분석	30
2.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6
3.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39
4. 실용무용전공자의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40
V. 논의	41
VI. 결론 및 제언	50
참고문헌	52
부록	57

표 목 차

표 1.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2. 설문지 주요구성 및 문항 수	23
표 3. 진로탐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5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6
표 5. 측정도구의 신뢰도	27
표 6.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의 t -test 결과	30
표 7. 연령에 따른 진로탐색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31
표 8. 경력에 따른 진로탐색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32
표 9.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t -test 결과.....	32
표 10.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33
표 11. 경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34
표 12. 성별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t -test 결과	34
표 13. 연령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35
표 14. 경력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35
표 15. 진로탐색,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 상관관계분석	36
표 16. 진로탐색이 긍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37
표 17. 진로탐색이 부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38
표 18.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39
표 19.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40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5

ABSTRACT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on Self-Esteem and Dance adherence in Practical dance major

Han Da-Som

Advisor : Prof. Seo, Young

Major in Da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of the practical dance major on self-esteem and dance adherence. Through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be a basic help in reducing dropout and increasing dance adherence by increasing the effect of career and self-esteem through career exploration of the practical dance major.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practical dance majors, centering on Seoul, and 201 copies of the data were analyzed, except for two copies, an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were analyzed by gender, age, and career,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two-independent samples t-test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In career explora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exploration. One-Way ANOVA and Scheffé were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ag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One-Way ANOVA and Scheffé were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career.

In career explora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exploration.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of practical dance majors on self-este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earch for a job during career searc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positive self among self-esteem, and the search for oneself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ositive self and negative self among self-esteem.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of practical dance majors on dance adher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earch for a job and the search for oneself during career searc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dance adherence.

Fou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self-esteem of practical dance major on dance adher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self-esteem, positive self and negative self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dance adherence.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career exploration of practical dance majors is a mutually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ntion to continue dancing. To have confidence in oneself through programs related to career and job, experience various activities, accept feedback on them, move in a positive direction, and explore a wider range of careers through the expansion of practical dance-related art support projects should be able to do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practical dance so that it can be a natural educational activity in the school education field.

Keywords : Practical Dance Major, Career Exploration, Self-Esteem,
Dance Adher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실용무용의 인식과 관심의 정도가 계속하여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의 스트릿댄스는 1980년대 후반 클럽 등지와 거리에서 자신들의 춤을 과시하고 서로에게 공유하던 젊은이들의 하위문화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에는 스트릿댄서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하여 대중을 대표하는 하나의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최용원 외, 2023). 실용무용을 접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거나 접근 방법의 한계가 있는 과거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발달해 나가고 있는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하여 편하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스트릿댄스가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코리아 갓 탤런트, 댄싱 9을 시작으로 댄싱하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트릿 걸스 파이터, 쇼다운, 스트릿 맨 파이터 등 방송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대중으로부터 소비되며 그로 인하여 대중들은 춤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대중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다양한 춤들이 전파되고 수용되면서 문화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어져 댄스학원들과 춤과 관련된 기관들이 개설되면서(신채룡, 2015), 전문적으로 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됨과 동시에 직접적인 참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배우려는 교육적 수요의 증가로도 이어졌다(최용원, 2020). 자연스럽게 춤에 노출이 되고 흥미를 얻게 되어 미래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그로 인하여 춤과 관련된 직업과 정보들을 찾아보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인지하게 된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로탐색으로 이어진다. 예술고등학교나 춤 관련된 대학교로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춤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들과 직업들을 찾아보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진로탐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현정(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직업 선택 시 창의적이면서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폭넓고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계획하여 교육과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연미(2020)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과 관련된 집단 상담을 실시하여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말하며, 진로탐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부분과 불안함을 덜어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 이해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예림(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아탄력성과 연관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 가능하여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로탐색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관련된 진로를 경험함으로써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지속의도가 높아질 것을 알 수 있다.

무용지속의도란 전공자가 활동을 수련하고 그 활동을 계속 참여하고 재참여의 의사를 희망하는 정도를 말하며,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력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희진, 2016). 최근 무용 분야의 연구자들은 무용을 중단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을 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용 지속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조희진, 2013).

무용교육은 대학교육과정에서는 물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실용무용은 교육적 가치의 요구를 통하여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교육현장에 유입되고 있다(안지형, 2019). 실용무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하고 졸업하는 과정에서 졸업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많은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들을 고용해 줄 직업의 문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 춤추는 것 자체가 좋아서 선택한 학과지만 졸업을 한 후에 직업적으로 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불안하고 부족한 상태였다(안창용, 2020). 그로 인하여 진로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학생들은 전공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 실용무용을 전공하는 학과의 중도탈락률은 전체 대학교의 평균 중도탈락률 보다 높으며 각 대학교의 평균 중도탈락률보다 높다고 한다. 이는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다른 분야를 전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실용무용 외의 분야로 전공이나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다(정지원, 2016).

최근 들어 실용무용을 전문적 교육으로 하는 4년제 정식 대학교들이 생겨나며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전공의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 학교로부터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 그로 인하여 학교를 입학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포기하거나 휴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학교를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학교를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이해도와 탐색으로 판단된다. 직업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진로탐색을 충분히 진행하여 실용무용 전공자들의 미래에 대한 진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확실한 방향을 제공하여 실용무용 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무용을 지속시킬 수 있는 진로탐색 방법들을 모색하고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와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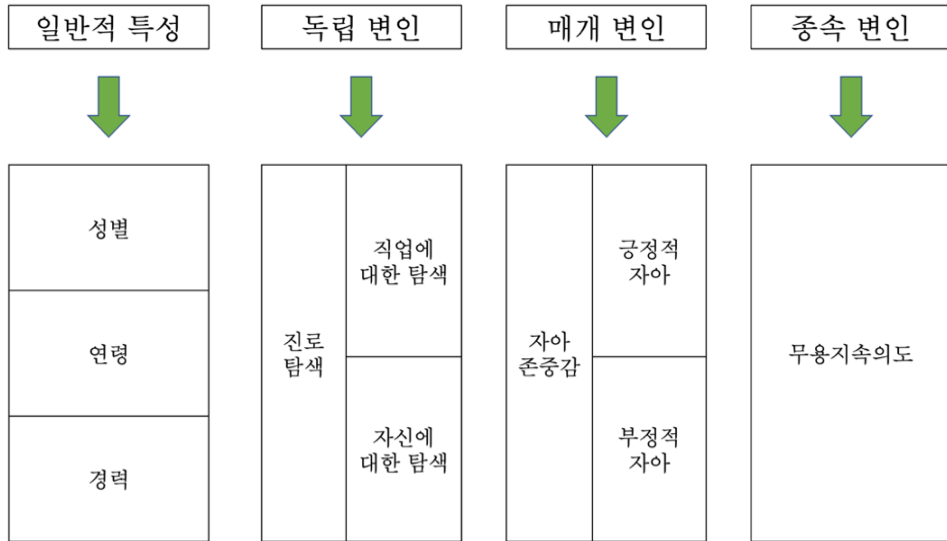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실용무용전공자들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진로의 다양한 방향 모색과 이를 이해하고 탐색하여 실용무용전공자들의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를 높이고 유지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차이를 규명한다.
- 둘째,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 셋째,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 넷째, 실용무용전공자의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실용무용 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무용지속의도를 높여주고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과 과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용무용 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배경변인으로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경력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인은 진로탐색으로 하위요인은 직업에 대한 탐색, 자신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되었다. 매개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하위요인은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로 구분되었다. 종속변인은 무용지속의도로 단일요인으로 하였다.



<그림-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성별에 따라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연령에 따라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경력에 따라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긍정적 자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부정적 자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실용무용전공자의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실용무용전공자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전국으로 연구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용무용 유형의 범위는 스트릿댄스 (힙합, 팝핑, 락킹, 왁킹, 하우스, 크럼프, 브레이킹)로 제한한다.

5. 용어 정리

1) 실용무용

실용무용은 형식을 갖추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체활동으로 대중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즐기면서 출 수 있는 춤이다. 실용무용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으로 이루어진 순수무용을 제외한 교육기관에 전공이 되는 스트릿댄스, 방송댄스,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등을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영역에서 스트릿댄스가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해 표기하는 의미로 나타내 실용무용이라고 정의하였다(최용원, 2020).

2) 진로탐색

진로탐색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발달 등을 목적으로 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동적·인지적 활동을 의미한다(강명옥, 2017).

진로탐색은 진로를 준비하거나 선택·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능력, 특성 등 개인의 특징에 대하여 평가하고 직업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

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작업으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행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의 하위요인을 직업에 대한 탐색, 자신에 대한 탐색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에 대한 탐색은 주변인이나 담당자를 찾아가는 비공식적 방법과 센터나 기관을 이용하는 공식적인 방법이며, 자신에 대한 탐색은 정보 내용 중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항과 주관적 가치판단 사항의 내용에 대한 탐색을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존중하며 유능하다고 믿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자아체계, 행동 및 성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존중감이다. 즉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삶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들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인을 믿는 것이다(Branden, 1992).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란 인생의 좋은 부분과 관련되었으며, 자신감이 있고 진취적이며 타인을 신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이란 인생의 나쁜 부분과 관련되었으며, 자신감이 저하되며 자신에 대하여 무가치함과 무능력감을 느껴 타인에게 의존적인 부분이 있으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4) 무용지속의도

무용지속의도란 개인이 연습이나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와 무용에 대한 애착 또는 집착, 지속을 의미한다(조희진, 2013).

무용지속의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을 수련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을 지속할 의지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며 규칙적으로 수행하려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무용지속의도를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이에 이론적 배경을 스트릿댄스, 진로탐색,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스트릿댄스

1) 스트릿댄스의 개념 및 정의

스트릿댄스란 스트릿 문화에서 생겨난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에 길거리 문화와 관련되며, 발생한 모든 형태의 춤을 스트릿 댄스라고 의미한다. 따라서 장르 하나만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스트릿 문화와 관련된 자유로움의 철학, 지식,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방면의 사회적인 문화요소와 관련해 생겨난 다양한 장르의 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박성진, 2013).

1999년 미국 일렉트릭 부갈루스(Electric Boogaloo)가 한국을 방문하여 그 개념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스트릿댄스는 오늘날 다양한 춤을 나타내고 있으며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으로는 스트릿댄스의 용어적 개념 정의이다. 스트릿댄스는 스트릿(Stret)과 춤(Dance)의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간혹 사람들이 스트릿댄스를 단어 자체의 의미로 해석하여 길거리 춤, 거리에서 추는 춤(dancing on the street)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스트릿댄스의 스트릿이라는 용어는 거리와 관련된 모든 문화를 일컫는 의미로 해석되며 거리 문화에서 생겨난 춤(born on the street culture)을 의미한다.

두 번째 측면으로는 스트릿댄스의 문화적 개념 정의이다. 스트릿댄스란 일반적으로 순수 무용에 영향을 받지 않은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춤, 거리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거리의 문화와 관련된 춤으로 정의된다(박성진, 2013).

2) 스트릿댄스의 장르

스트릿댄스는 196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아프리카 리듬과 소울과 같이 여러 가지 파티 댄스(party dance)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는 팝핑, 락킹, 비보잉, 왁킹, 하우스, 프리스타일 힙합, 크럼프 등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스트릿댄스의 장르를 나누어 구분할 때 올드스쿨과 뉴스쿨로 구분되어 진다. 일반적으로는 해당하는 장르가 유래한 음악의 장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970~1980년대의 초기 힙합음악(Hiphop Music)과 펑크 음악 등에서 유래한 팝핑, 브레이크, 락킹, 왁킹의 장르들이 올드스쿨로 불리며,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음악에서 유래한 프리스타일 힙합, 하우스 그리고 크럼프와 같은 새로운 장르들을 뉴스쿨로 분류한다(천성욱, 2017).

(1) 팝핑(POPPING)

팝핑은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여 신체의 각 부위들을 튕기거나 끊어지게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테크닉이다. 신체 근육의 움직임으로 다양한 느낌들을 만들어 발전시켰으며 다양한 스타일들의 결합방식으로 신기하고 신선한 움직임들을 음악적 표현들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팝핑은 1970년대에 부갈루 샘(Boogaloo Sam)에 의해 미국 LA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Fresno)에서 시작됐다.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움직임들이 먼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부갈루샘이 팝핑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테크닉을 만든 사람으로서 창시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 부갈루샘이 결성하여 활동한 일렉트릭 부갈루스(Electric Boogaloo)는 부갈루 샘을 포함하여 그의 동생인 팝핑피트(Popin' Pete), 스킷터래빗(Skeeter Rabbit), 팝엔타코(Pop 'n' Taco), 슈가팝(Sugar Pop), 미스터 위글스(Mr. wiggles)로 1980년대 후반에 최고의 기량의 멤버 6명이 전 세계에 팝핑을 발전시키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팝핑은 미국 서부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시작되어 발전하였다. 서부의 영향을 받은 동부에서는 오리지널 형식의 서부 댄서들이 사용하는 펑크 음악보다 좀 더 빠른 브레이크 비트에 맞추어 춤을 췄다. 당시에는 춤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소울 트레인(Soul Train)이나 그 외 TV 쇼 등을 접하고 잘못 전파되어 그것을 부정확하게 모방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미국 동부인 뉴욕의 대표적 팝퍼 미스터위글스가 일렉트릭부갈루스 멤버들에게 정확하게 팝핑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동부의 팝퍼들도 정확하게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팝핑은 미국 본토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팝핑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스타일 중 하나이며, 가장 체계적 움직임의 확립해 발전하고 있다(박성진, 2013).

(2) 락킹 (Locking)

락킹은 가장 오래된 스타일로 펑키하고 코믹스러운 캐릭터를 가진 춤이다. 1970년대 미국의 서부 LA 에 위치한 와츠(Watts)지역을 중심으로 탄생하여 발전한 춤이며 스트리트 댄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초에 돈캠벨(DonCampbel)이 LA 의 클럽에서 락(Lock)이라는 자물쇠를 잠그는 듯한 동작의 효과를 표현하여 즉흥형태의 동작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하였으며 이 춤의 핵심이 되었다. 곧 그의 이름은 락(Lock)과 합쳐져서 ‘캠벨락(Campbellock)’ 혹은 ‘캠벨락킹(Campbellocking)’이라는 이름으로 춤의 명칭이 되었으며, 훗날에는 락킹으로 축약되어 불리기도 하였다. 락킹의 춤과 문화는 빠르게 유행이 되었고, 소울트레인이라 불리는 TV 쇼에 의해서 퍼져 나가 댄서들은 다양한 스텝과 동작들을 찾았다.

락킹의 주된 움직임은 상체는 여덟 가지 동작(8 Moves), 하체는 다섯 가지 동작(5 Steps)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댄서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아크로바틱과 파티 댄스 등의 표현과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락킹에서는 순간적으로 동작을 제어하여 리듬이 멈추는 듯한 효과를 주는 락(Lock)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것이다.

락킹은 미국을 넘어 여러 도시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락킹에 대한 설립과 기본을 무시하고 착취하려는 욕구를 가져 잠시 주춤거렸지만 창시자와 선구자들이 유럽, 아시아 등에 춤을 전파하면서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발전하고 있다(정상현, 2019).

(3) 브레이크(BREAKIN)

브레이크는 1970년대 초 미국 뉴욕 브롱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브롱스에는 파티 문화가 성행하였는데 이 문화에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된다.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디제이 쿨허크 (DJ Kool Herc)가 진행하는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췄으며, 그들 중에는 브레이크 비트에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쿨허크는 그들을 위하여 브레이크 비트를 루프시켰고 그 비트에 춤을 추는 사람들을 비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노유성, 2014).

두 턴테이블과 믹서로 곡의 간주(Break) 부분을 무한으로 반복시키는 쿨허크의 전매특허인 기술 '메리 고 라운드(Merry-Go-Round)'를 선보여 춤과 함께 성공적인 파티를 만든다.

폭력이 만연하던 시절, 어두운 환경 속에서 생겨났지만 평화와 자유를 원하는 흑인들의 삶과 정신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춤이라 할 수 있다. 비보잉의 배틀문화는 실질적인 갱들의 전쟁이 많이 줄었으며, 과격한 분위기 속 고유한 방식이 생겨났다(박성진, 2013). 현재에는 강하고 강렬하며 역동적인 파워무브(Power Move)와 리드미컬한 형태를 이루어져 음악적 표현에 효과적이고 자신의 스타일을 표출할 수 있는 스타일 무브(Style Move)로 나누어진다(노유성, 2014).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대한민국이 해당 종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다.

(4) 왁킹(Waaking)

왁킹은 1970년대 초중반에 게이 클럽 문화에서 생긴 펑크스타일의 댄스이다. 본래의 이름은 펑킹(PUNKING)이었으며 왁킹(WHACKING)으로 바뀌게 되었다. 펑킹은 어더그라운드 댄서 마이클 엔젤로(Michael Angelo)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유명한 TV SHOW 인 소울트레인(Soul Train)에 출연했던 댄서들 중에서 오리지널 소울트레인 댄서였던 타이런(Tyrone proctor)과 롤리팜(Anna sanchez), 샤바두(Shabba doo) 등의 댄서들을 통해 왁킹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샤바두는 언더그라운드 댄서들과 교류하여 펑킹스타일에 락킹을 처음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댄서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Party Waacking 의 시작이었다(천성욱, 2017).

왁킹은 초기에는 Wacking 으로 사용되었었다. 타이런 프락터가 팀 멤버들에게 왁킹을 가르칠 때 후려치듯이 팔을 사용하라고 했으며, 그 의미의 단어인 Whack 과 Wack 을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 초기에 이름을 정했으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제프리 다니엘(Jefrey Daniel)의 ‘a’를 하나 더 넣자는 주장이 반영이 되어 Waacking 으로 바뀌었다.

왁킹은 액터와 모먼트를 주요시하며, 감정적인 내면의 공유인 펑킹을 포함하여 큰 무브의 왁(WAACK)과 포징(Posing)이 구성된 춤이다. 왁킹은 올드스쿨 댄스로서 계속해서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다(천성욱, 2017).

(5) 프리스타일 힙합 (Freestyle Hiphop dance)

프리스트아일 힙합댄스는 1984 년 말에 탄생되었다. 뉴욕의 록시(Roxy)라는 롤러장은 비보잉과 펑크스타일의 신에 희망을 주었으며, 부다 스트레치(BuddhaStretch)도 있었다. 초반 프리스타일 힙합은 선구자 격인 댄서들과 유명한 뮤지션들이 무대를 함께하면서 널리 알려졌다(박성진, 2013). 록시가 문을 닫자 직원들은 인페르노(Inferno)라는 클럽으로 이동하였고, 금요일마다 힙합음악을 틀었다. 그러나 문을 닫았으며, 부다 스트레치는 함렘에 루프탑(Roof Top)이라는 롤러장에 가기 시작한다. 그곳에서 크루를 만들어서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며, 그 해 말에 유니온 스퀘어(UNION SQUARE)라는 클럽이 14 번가에 문을 열게 된다. 그곳에서 프리스타일 힙합댄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당시에 부다 스트레치는 자신의 모든 춤들을 집어넣어 만들었다고 한다.

몹탑 크루(MopTop Crew)는 링크(LINK), 칼리프(Caleaf), 이조(Ejoe), 그리고 스트레치(Stretch)이며, 마이클잭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알려졌다. 그들 중 실력이 뛰어나서 앞줄에 서 춤을 추면 그들을 엘리트 포스(Elite Force) 라 불렀는데, 엘리트포스는 현재까지도 프리스타일 힙합을 대표하고 있다(천성욱, 2017).

다양한 형태들의 파티댄스를 받아들여 전반적으로 모든 스트리트댄스를 총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보기보다는 여러 스타일을 자유롭게 섞어 추는 춤으로 다양한 음악에 맞춰 추며, 현재까지도 진화하고 있는 스타일이다(박성진, 2013).

(6) 하우스(House)

하우스는 1980년대 시카고에 웨어하우스(Ware house)라는 클럽에서 디제이 프랭키 너클스(Frankie Nuckles)가 틀던 음악을 하우스 음악이라고 불러 알려지게 되었다. 이 클럽에서 디스코를 시작으로 카포에라나 아프리카 춤, 탭 춤 등 많은 장르의 사람들이 모였으며, 다양한 춤들이 하우스음악에 움직여지면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며 하우스의 기초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많은 영향을 받고 다양한 움직임들이 생겨나며 많은 발전을 하게 된다. 잭킹(Jacking)이라는 춤이 유행을 하였고, 70년대 80년대에 유행이 이어졌으며 시카고의 하우스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 시카고는 물론이며 뉴욕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타악기 리듬처럼 빠르고 신나는 현란한 스텝들은 아프리카 민속춤에 기원을 두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후에는 풋워크(Footwork)를 포함한 유행하는 스텝이나 힙합이 더해지면서 하우스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노유성, 2014).

하우스의 전통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뉴욕에서 브레이킹과 힙합을 하는 댄서들에 의해서 발전돼 대중들에게 알려졌다고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뉴스쿨의 주요 장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천성욱, 2017).

(7) 크럼프(Krump)

크럼프의 시초는 199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댄서 타미 더 클라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클라운댄스(Clown dance)에서 유래하였다. 타미 더 클라운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한 후에 주로 아이들의 생일파티에서 클라운댄스를 선보였다. 그 이후에는 흑인들의 살인이나 폭행, 마약들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춤을

통하여 극복하고 변화시키고자 팀을 만들고 발전시켰다. 클라운댄스의 가장 큰 특징은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외형적인 특징과 움직임에 있다. 이 팀이 추구하는 스타일과는 다르게 공격적이며 강한 춤을 보이던 타이트 아이즈(Tight Eyez)와 빅 미오(Big Mijo)의 춤 스타일을 초기에는 와일딘 아웃(Wildin Out)이라 불렀으며,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후에는 크럼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클라운 댄서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배틀 세션에서 자신들만의 춤 스타일을 선보였지만, 타미 더 클라운은 두 사람을 팀에서 퇴출당하게 한다(노유성,2014).

팀과 떨어진 타이트 아이즈와 빅 미오는 자신들의 스타일의 춤인 크럼프를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가장 의미 있는 배틀 활동으로는 크렌쇼(Crenshaw)대로의 한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한 배틀로, 클라운 댄서들을 찾아가서 배틀을 하여 이겨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때 타이트 아이즈와 크럼프 댄서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지 않고 배틀에 참여하였다. 그 후 타이트 아이즈와 빅 미오는 ‘더 카툰즈 패밀리(The Cartoonz Family)’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크럼프를 가르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킨다. 2003년에는 최초로 크럼프 관련 DVD 인 ‘쉐이크 더 시티 101(Shake The City 101)’를 제작하였으며, 쉬리 닥터(Shiri Doctor)와 만나 2004년에 최초의 크럼프 커뮤니티인 ‘크럼프 킹즈(Krumpkings)’를 만들어 크럼프를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리는 큰 영향을 끼쳤다(노유성, 2014).

2. 진로탐색

진로탐색은 진로를 준비하거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신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양한 직업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진로 선택은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다. 개인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활 양식이나 태도와 가치관 등 모든 것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진로의 향방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이다(김충기, 1995). 진로와 직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진로탐색은 일과 직업세계의 탐색과 동시에 자아의 특성에 대한 탐색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이동운, 2021).

진로탐색이란 진로 발달의 한 단계로서 실제로 진로의 목표를 세우고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직업세계의 특성과 취업조건에 결부시켜서 구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최적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개인의 가치관과 특성 및 요구와 직업세계의 특성과 요구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과정이다(민동임, 2008). 진로탐색은 진로 발달의 한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다양하게 조사하고, 진로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는 단계로 보았다(김충기, 1986).

진로탐색이 일과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는 동시에 자아 특성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과 관련하여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였다. 진로탐색 시에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대한 이해, 현대 사회와 직업 관계, 산업 및 직업분류, 직업의 의미와 직업의 필요성, 진학 및 직업준비,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 바람직한 직업 선정, 장래의 직업 계획 수립 등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유은숙, 2003). 진로탐색을 자신의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체

계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 수집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이현주, 2001).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욕구, 가치에 대한 탐색과 직업세계의 정보와 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 직업을 합리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라 하였다(정지숙, 2008). 진로탐색행동은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의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신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에 대한 탐색은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활동이 중심이며, 수집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들은 진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신에 대한 탐색은 탐색 방법과 탐색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이 특징으로는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등이 있다(이현민, 2020).

진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하는 결정이다. 자신이 선택한 일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로 결정은 인지적 과정이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수집한 자료가 없으면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진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자료와 정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 행동을 탐색 행동이라고 명하고 있다(이건미, 2008).

진로 고민으로 인해 학생들은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가지기도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통한 노력을 할 필요를 느낀다. 이러한 필요성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진로탐색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진로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결정으로 이어가도록 하고, 그 결정을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의해 만들어 가는 평가적인 차원이라고 보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로 표현이 되며 자신의 가치, 능력, 성공, 중요성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스스로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즉,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태도에서 보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고 하였다(이준철, 2010).

자아존중감의 의미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의지와 신념, 행동 및 정서 등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로 보았으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적 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라고 하며,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자아존중감이라고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치가 있으며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자만심으로 가지고 타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존재는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oopersmith(1967)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기 자신을 수용을 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며, 자기 자신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자아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를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표현하였으며, 넓은 의미로는 자기 지각과 확신, 강화, 자아상, 수용 등과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Atwater(1992)는 자아존중감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개인적인 가치감이라 정의하였다.

Branden(1992)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을 맞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라 하였다.

Murphy(1947)는 자아존중감을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대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과 관계되는 스스로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다.

Rosenberg(1986)은 자아존중감은 크게 4 가지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아 귀인 그리고 심리적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영된 평가는 Mead(1974)의 이론에 대해 기초한 것으로서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는 태도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Mead(1974)는 자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 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상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사회적 비교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계층을 나타내는 직업, 인종, 지위 등을 말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 따라 위계적으로 질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차원의 각 범주에서는 사회로부터 고유한 평가가 부여되는데 전문직이거나 특정한 사회적 지위는 가치가 있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다른 직업과 그 외 지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가 속한 사회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아 귀인 원리는 귀인이론과 관계있는 원리이다. 사물의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환경과 같은 외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 경향과 같은 내적인 것에서 찾을 수도 있다(Shaw & Costanzo, 1982). 즉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행위를 관찰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시험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룬다면 자신은 지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심리적 중요성은 자아개념 내의 지능, 사회적 지위, 친절, 도덕심 등의 요소들이 있으며,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아개념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중요성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고려되어야 한다(Rosenberg, 1979). 즉 어떠한 요소는 개인의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주변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자신을 어느 정도 유능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정서, 태도를 포함하는 판단적 개념으로 정의한다(송난영, 2001).

4. 무용지속의도

무용지속의도란 개인이 연습이나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와 무용에 대한 애착 또는 집착, 지속을 의미한다(조희진, 2013). 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을 수련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의지력을 의미한다.

무용지속의도의 개념은 운동학적 관점에서 온 것이며,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동 지속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운동 지속이란 개인이 운동에 직접 참가하여 그 활동을 정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김은애, 2002). 또 다른 해석으로 운동 지속이란 운동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서 운동에 대한 집착과 지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운동 시간, 운동 강도, 운동 빈도 등이 포함되는 꾸준한 운동 참여로 해석하고 있다(이광옥, 2012).

지속의도란 체육 전공자가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본인 의지로 훈련과 수련을 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원하는 의지를 의미하며(이유나, 2019), 운동에 대한 애착과 집착 또는 지속을 의미하기도 하며 운동을 가볍게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흥미와 즐거움, 건강과 체력, 여가와 생활 만족, 스트레스 해소, 자아 실현 등의 개념을 의미한다(김혜지, 2016).

따라서 무용지속의사란 개인의 의지로 계속해서 연습과 활동, 공연 등을 참여하고 개인의 생활에 항상 따라오는 습관과 같은 것으로 규칙적으로 해나가려는 의지력이라 정의한다.

무용지속에 영향을 미치며 강화 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4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 아울러 과거의 무용참여 경험, 긍정적 보상, 긍정적 태도, 사전적 지식, 성격, 참여 목적도 지속적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둘째는 역할 학습이나 참가 과정에서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동료, 지도자와 관계가 있다. 이는 가치관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는 상황적 요인으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참가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넷째는 흥미와 즐거움 요인으로 활동의 만족을 통하여 지속의 가능성과 의지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리적 욕구와 정신적인 건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에 충분하다 (유정이, 2011).

무용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흥미와 즐거움도 중요하며 동반되는 몰입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폭 빠져서 무아지경의 상태 일 때, 그 경험은 매우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장두레, 2011).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높은 몰입의 경험으로 이어지며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펴본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하여 실용무용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3월에서 4월에 이루어졌으며, 표본은 비확률적표집방법 중에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의 응답으로는 자기평가기법으로 연구의 대상자가 내용에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기입 및 불성실한 응답은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문지 203 부에서 2 부를 제외한 총 201 부의 자료가 실제적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66	32.8
	여자	135	67.2
연령	20~23 세	89	44.3
	24~27 세	82	40.8
	28 세 이상	30	14.9
경력	3 년 이내	34	16.9
	3~6 년	72	35.8
	6 년 이상	95	47.3
	전체	201	100.0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자 66 명(32.8%), 여자 135 명(67.2%)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0~23 세 89 명(44.3%), 24~27 세 82 명(40.8%), 28 세 이상 30 명(14.9%)로 나타났다. 경력은 6년 이상 95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6년 72명(35.8%), 3년 이내 34명(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배경변인으로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3 문항, 독립변인으로는 진로탐색을 측정하는 7 문항, 매개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8문항, 종속변인으로는 무용지속의도를 측정하는 7문항으로 총 2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 주요구성 및 문항 수

구성지표	하위변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1	3
	연령	2	
	경력	3	
진로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	1,2,3,4	7
	자신에 대한 탐색	5,6,7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	1,2,3,4	8
	부정적 자아	(5),(6),(7),(8)	
무용지속의도		1,2,3,4,5,6,7	7
총 문항 수			30

(-) 역문항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주요구성 및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경력을 묻는 총 3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20~23 세, 24~27 세, 28 세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경력은 3 년 이내, 3~6 년, 6 년 이상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진로탐색 설문지 척도로는 최동선(2003)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진로탐색에 대한 문항은 직업에 대한 탐색 4 문항, 자신에 대한 탐색 3 문항으로 총 7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 설문지 척도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차원성을 지지 받으며 척도로서의 요건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문항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4 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4 문항으로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무용지속의도 설문지 척도로는 Corbin 과 Lindsey(1994)가 개발한 척도를 조정 환과 남은경(2000)이 번안하여 오수학(2000) 등이 타당화 한 운동지속수행 검사지를 무용 상황에 수정해 사용한 조희진(2013)의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무용지속의도에 대한 문항은 단일 요인으로 총 7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높이고,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의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변수들을 뚜렷하게 분류하고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요인 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직각회전방식인 베리맥스(Verimax)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고유치는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구성하였다.

표 3. 진로탐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1 요인	2 요인
직업에 대한 탐색	진로탐색 3	.817	.306
	진로탐색 1	.781	.287
	진로탐색 4	.772	.325
	진로탐색 2	.723	.231
자신에 대한 탐색	진로탐색 6	.306	.868
	진로탐색 7	.311	.794
	진로탐색 5	.272	.762
고유치		2.662	2.299
분산		38.027	32.846
누적		38.027	70.872

KMO=.831, Bartlett's $\chi^2=719.475$, $df=21$, $p=.001$

진로탐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 요인 7 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40 이상을 보이며 공통성도 .40 이상을 나타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2.299 부터 2.662 로 나타났고, 분산은 32.846 부터 38.027 까지 분포하였으며 총 누적비율은 70.872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진로탐색을 타당하게 측정됨을 보여준다.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1 요인	2 요인
긍정적 자아	자아존중감 1	.883	.228
	자아존중감 3	.782	.321
	자아존중감 4	.695	.533
	자아존중감 3	.645	.506
부정적 자아	자아존중감 8	.282	.896
	자아존중감 6	.316	.814
	자아존중감 7	.339	.784
	자아존중감 5	.488	.667
고유치		3.219	2.823
분산		40.241	35.282
누적		40.241	75.524

KMO=.905, Bartlett's $\chi^2=1118.932$, $df=28$, $p=.001$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 요인 8 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40 이상을 보이며 공통성도 .40 이상을 나타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2.823 부터 3.219 로 나타났고, 분산은 35.282 부터 40.241 까지 분포하였으며 총 누적비율은 75.524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자아존중감을 타당하게 측정됨을 보여준다.

2) 신뢰도

신뢰도 분석이란 측정도구를 여러 번 반복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며,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기준에 따른 Cronbac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 결과, 진로탐색의 하위변인 직업에 대한 탐색 .842, 자신에 대한 탐색 .823 로 나타나 전체 신뢰도는 .880 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 긍정적 자아 .870, 부정적 자아 .886 으로 나타나 전체 신뢰도는 .916 로 나타났으며, 무용지속의도의 전체 신뢰도는 .785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a 계수가 0.7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으며 진로탐색,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 신뢰도가 모두 Cronbach'a 계수가 0.7 이상이므로 신뢰도가 높아 본 연구에 적합한 측정도구로 판단하였다.

표 5.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Cronbach'a)
진로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 1,2,3,4	4	.842
	자신에 대한 탐색 5,6,7	3	.823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 1,2,3,4	4	.870
	부정적 자아 5,6,7,8	4	.886
무용지속의도	1,2,3,4,5,6,7	7	.785

4.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지를 연구 대상자인 실용무용전공자들을 연구와 관련된 스튜디오 연습실, 학원 등의 장소를 통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전달받았다. 또한 직접 대면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문자와 SNS 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들은 설문지 내용에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며 자기평가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203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확인 후 내용을 기입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2 부의 자료는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이 가능한 201 부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목적에 따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한 자료처리 방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를 구성하는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및 사후검정 Scheffe 를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

실용무용전공자의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업에 대한 탐색 ($t=-2.101, p=.03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직업에 대한 탐색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탐색 ($t=-1.369, p=.17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의 *t*-test 결과

	성별	N	M	SD	<i>t</i>	<i>p</i>
직업에 대한 탐색	남자	66	4.36	.52	-2.101	.037
	여자	135	4.51	.45		
자신에 대한 탐색	남자	66	4.53	.45	-1.369	.173
	여자	135	4.63	.53		

(2) 연령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

실용무용전공자의 연령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업에 대한 탐색 ($F=2.870, p=.059$), 자신에 대한 탐색 ($F=1.201, p=.30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연령에 따른 진로탐색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나이	N	M	SD	F	p	scheffe
직업에 대한 탐색	20~23 세	89	4.41	.48	2.870	.059	-
	24~27 세	82	4.45	.47			
	28 세 이상	30	4.65	.47			
자신에 대한 탐색	20~23 세	89	4.45	.54	1.201	.303	-
	24~27 세	82	4.61	.49			
	28 세 이상	30	4.71	.45			

(3) 경력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

다음은 실용무용전공자의 경력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업에 대한 탐색 ($F=8.15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직업에 대한 탐색에서는 6 년 이상 ($M=4.54, SD=.43$), 3~6 년 ($M=4.50, SD=.53$) 순으로 나타나 경력이 많을수록 직업에 대한 탐색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탐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경력에 따른 진로탐색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나이	N	M	SD	F	p	scheffe
직업에 대한 탐색	3년 이내 ^a	34	4.18	.38	8.155	.001	a<b,c
	3~6년 ^b	72	4.50	.53			
	6년 이상 ^c	95	4.54	.43			
자신에 대한 탐색	3년 이내	34	4.51	.46	.861	.424	-
	3~6년	72	4.58	.55			
	6년 이상	95	4.64	.5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실용무용전공자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자아 ($t=-.520, p=.604$), 부정적 자아 ($t=-.012, p=.99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t*-test 결과

	성별	N	M	SD	t	p
긍정적 자아	남자	66	4.63	.50	-.520	.604
	여자	135	4.67	.48		
부정적 자아	남자	66	4.52	.72	-.012	.990
	여자	135	4.52	.76		

(2)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다음은 실용무용전공자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자아 ($F=.701, p=.497$), 부정적 자아 ($F=1.225, p=.29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나이	N	M	SD	F	p	scheffe
긍정적 자아	20~23 세	89	4.63	.49	.701	.497	-
	24~27 세	82	4.66	.48			
	28 세 이상	30	4.75	.49			
부정적 자아	20~23 세	89	4.44	.72	1.225	.296	-
	24~27 세	82	4.57	.82			
	28 세 이상	30	4.66	.57			

(3) 경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다음은 실용무용전공자의 경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자아 ($F=.307, p=.736$), 부정적 자아 ($F=.149, p=.86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경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나이	N	M	SD	F	p	scheffe
긍정적 자아	3년 이내	34	4.62	.45	.307	.736	-
	3~6년	72	4.69	.49			
	6년 이상	95	4.65	.49			
부정적 자아	3년 이내	34	4.58	.55	.149	.862	-
	3~6년	72	4.53	.72			
	6년 이상	95	4.50	.8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

실용무용전공자의 성별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무용지속의도 ($t=-.996, p=.3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성별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t*-test 결과

	성별	N	M	SD	t	p
무용지속의도	남자	66	4.27	.60	-.996	.320
	여자	135	4.35	.51		

(2) 연령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

다음은 실용무용전공자의 연령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무용지속의도 ($F=2.666, p=.07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연령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나이	N	M	SD	F	p	scheffe
무용지속의도	20~23 세	89	4.26	.48	2.666	.072	-
	24~27 세	82	4.31	.58			
	28 세 이상	30	4.53	.57			

(3) 경력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

다음은 실용무용전공자의 경력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무용지속의도 ($F=.380, p=.68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경력에 따른 무용지속의도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나이	N	M	SD	F	p	scheffe
무용지속의도	3년 이내	34	4.32	.47	.380	.685	-
	3~6년	72	4.28	.58			
	6년 이상	95	4.36	.54			

2.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 진로탐색,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는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에 앞서 기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진로탐색,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진로탐색,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 상관관계분석

	직업에 대한 탐색	자신에 대한 탐색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	무용지속의도
직업에 대한 탐색	1				
자신에 대한 탐색	.648**	1			
긍정적 자아	.381**	.433**	1		
부정적 자아	.164*	.237**	.773**	1	
무용지속의도	.625**	.565**	.601**	.564**	1

*p<.05, **p<.01

<표 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에 대한 탐색은 긍정적 자아($r=.381$), 부정적 자아($r=.164$)들과 자신에 대한 탐색은 긍정적 자아($r=.433$), 부정적 자아($r=.237$)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무용지속의도는 긍정적 자아($r=.601$), 부정적 자아($r=.564$)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무용지속의도는 직업에 대한 탐색($r=.625$), 자신에 대한 탐색($r=.565$)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진로탐색이 긍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긍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6> 다음과 같다.

진로탐색이 긍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아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beta=.320, p=.001$), 직업에 대한 탐색($\beta=.174, p=.03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 설명력은 21%($R^2=.205$)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신에 대한 탐색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가 높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6. 진로탐색이 긍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변수	<i>B</i>	<i>S.E</i>	β	<i>t</i>	<i>p</i>
(상수)	2.476	.312		7.943	.001
직업에 대한 탐색	.176	.084	.174	2.089	.038
자신에 대한 탐색	.304	.079	.320	3.842	.001
<i>F=25.484 (p<.001), R² = .205 , Adjusted R² = .197</i>					
<i>Durbin-Watson = 1.689</i>					

3) 진로탐색이 부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부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7> 다음과 같다.

진로탐색이 부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자아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beta=.266$, $p=.01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 설명력은 6%($R^2=.056$)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가 높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7. 진로탐색이 부정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변수	<i>B</i>	<i>S.E</i>	β	<i>t</i>	<i>p</i>
(상수)	2.888	.522		5.531	.001
직업에 대한 탐색	.027	.141	.017	.190	.850
자신에 대한 탐색	.330	.132	.226	2.493	.014

$F=5.920$ ($p<.003$), $R^2 = .056$, $Adjusted R^2 = .047$

Durbin-Watson = 1.002

3.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8> 다음과 같다.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용지속의도에서 직업에 대한 탐색($\beta=.447, p=.001$)과 자신에 대한 탐색($\beta=.27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 설명력은 44%($R^2=.435$)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신에 대한 탐색이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8.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i>B</i>	<i>S.E</i>	β	<i>t</i>	<i>p</i>
(상수)	.712	.295		2.414	.017
직업에 대한 탐색	.508	.080	.447	6.372	.001
자신에 대한 탐색	.293	.075	.275	3.915	.001
<i>F=76,165 (p<.001), R² = .435 , Adjusted R² = .429</i>					
<i>Durbin-Watson = 1.341</i>					

4. 실용무용전공자의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실용무용전공자의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9>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용지속의도에서 긍정적 자아($\beta=.411, p=.001$), 부정적 자아($\beta=.247,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 설명력은 39%($R^2=.386$)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가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가 높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9.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i>B</i>	<i>S.E</i>	β	<i>t</i>	<i>p</i>
(상수)	1.363	.300		4.551	.001
긍정적 자아	.461	.098	.411	4.683	.001
부정적 자아	.180	.064	.247	2.813	.005
<i>F=62.273 (p<.001), R² = .386 , Adjusted R² = .380</i>					
<i>Durbin-Watson = 1.724</i>					

V. 논의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하여 실용무용 전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용무용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여 분석한 연구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 선행연구에 비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1.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 차이

1)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 자아존중감, 무용지속의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무용전공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진로탐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진로탐색은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신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특성 변인 중 성별에 따라 진로탐색의 하위요인인 직업에 대한 탐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진로탐색의 하위요인인 직업에 대한 탐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순수무용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건미(2017)의 연구에서는 여학생 전공자들이 남학생 전공자들보다 진로탐색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용이 여성 중심인 경향이기 때문에 무용과 관련된 직업 시장에서 남성보다 취업의 기회가 더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탁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직업에 대한 탐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진로탐색에 대한 관심이나 진로결정에 대한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을 통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여자의 경우 진로탐색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취업관련 기회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만큼 빈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한계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는 성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관대하였으며 남자가 자아존중감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예전보다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으며 차별은 줄어들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용지속의도는 성별보다는 개인적인 의지와 높은 열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 연령에 따른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 변인 중 연령에 따라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탐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면서 진로의 방향을 잡아가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있다.

이건미(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이 많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제한된 정보량으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단계로 보이며 직업에 대한 정확한 탐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므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인다. 이은경, 이혜성(200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와 직업이 결정된 정도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의 정도가 뚜렷하게 분명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로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들이 성격의 이해나 기술적 정보 수집을 기초로 하는 진로탐색의 측면이라면 자기 효능감 증진과 개인의 인지적 요소 강화를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는 연령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지속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정보를 많이 얻어 새로운 것 만을 찾아보기 보다는 이미 확보한 정보들을 통하여 상실된 의지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참가하게 되어야 한다.

이진주(2017)의 연구에서는 무용지속의도가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같은 성향과 목표를 가진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 지속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높은 무용지속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를 유지시키도록 지도자는 역량을 키우고 더 강화하도록 교우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경력에 따른 진로탐색과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 변인 중 경력에 따라 진로탐색의 하위요인인 직업에 대한 탐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력이 많을수록 직업에 대한 탐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많을수록 직업에 대해 얻어지는 정보량이 많이 축적되어 그 정보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진로를 적용시키고 직업에 대한 탐색을 확장 시켜 나가 확신을 가진 행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김희경(2009)의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탐색이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는 경력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영선(2018)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 요건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기능 향상과 진로문제에 대하여 고민도 많아지며 경력이 많을

수록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감소되는데 이는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많은 경험들이 쌓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력의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무용지도자는 수업을 설계 또는 지도하는 데 있어서 경력의 차이를 따지기보다는 인식하는 정도나 대하는 마음과 심리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진주, 2017). 경력이 많다고 하여 자아존중감과 지속의도가 모두 높은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차이는 존재한다. 경력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 중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의 하위요인인 직업에 대한 탐색은 긍정적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한 탐색은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혜경(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자아존중감을 지각하는 부분이 높을수록 진로의 관여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적인 이해와 진로를 준비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으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나 관련변인 진로탐색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하고 확신을 가지면 원하는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며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다.

또한 이동운(2021)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진로탐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하여 본 연구의 간접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자기조절 능력과 자신감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세가 필요하며 진로탐색과 진로 관련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향주(2013)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하여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중 진로탐색활동과 정보수집활동에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신념이 정보수집과 계획을 세워 진로탐색활동에 대해서 긍정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자신감도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지연, 이기학(2014)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가 탄력적일수록 경직된 자아보다 더욱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취업과 진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로과정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진로에 대하여 개인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며, 진로과정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윤영미(2003), 조성심(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을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나타냈다. 이는 자신에 대해 탐색을 통하여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자기인식과 자신의 직업적 소질에 대하여 파악해보고 잠정적으로 진로를 탐구하고 선택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자신감을 얻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래미, 김승일(2017)의 연구에서는 무용진로탐색을 중심으로 경험하는 즐거움을 통하여 자기효능감 효과를 높이고 유발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무용진로탐색과 무용교사들의 지도로 인하여 흥미와 지속적 경험을 통해 진로 방향을 확고히 하였으며,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자신의 무용 실력에 대한 보람과 무대의 경험과 과정을 통하여 자기 관리로 이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본인의 삶에 만족하게 되면서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아에 대한 이해와 자기가 원하는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간관계 기술과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지고 자신을 알아가며 존중하고 진로를 의식하는 것이 성숙해지며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진로탐색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히 정해져 있는 직업의 정보만을 알아내기보다는 그 정보들을 통하여 자

신의 내면과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직업과 진로의 확신을 가지면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으로 우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의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한다. 공연을 관람하거나 공연 무대를 직접 참여하여 영향을 받아 동기부여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활동들을 진로와 연결시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의 하위요인인 직업에 대한 탐색, 자신에 대한 탐색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원(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진로교육은 학업지속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간접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서 진로탐색과 관련된 대학진로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여주고 있다.

정지원(2016)의 연구에서는 실용무용전공자들의 진로 제시와 전공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이 학업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는 지도자의 다양한 진로 제시와 학습자가 지도자와 동료들의 진로탐색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진로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을 지속할 의지를 더욱 높여준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또한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201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학업지속의향에 직접 효과를 보였고, 진로동기의 학업지속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하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진로동기를 매개로 하여 학업지속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되었다. 주변 사람으

로부터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지속할 의지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무용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탐색을 통하여 직업의 정보와 진로의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직업과 진로에 속해 있는 지도자나 선배와 동료들의 경험이나 활동들을 듣거나 그 활동들을 함께 만들어 공연을 제작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효과를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일 경우에는 제약이 있으며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진로와 직업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무용을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사업에 독립적인 장르로 확대하여 직업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실용무용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진로를 선택한 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술관련 지원사업에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자리를 넓혀가며 진로와 직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지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실용무용이 교육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긍정적 인식과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교육현장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은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교육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주며, 이 직업을 통하여 올바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실용무용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표현력과 창의성을 흥미롭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다양한 교육의 형태로 발전해 나갔으며 한다.

4. 실용무용전공자의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실용무용전공자의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전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지영(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무용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이 중요하며, 교육현장에서 격려와 칭찬을 통해 스스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지속의도도 높아진다는 간접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최예림(2015)의 연구에서도 체조선수의 자아탄력성이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탈진이나 슬럼프와 같은 이유로 운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문제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으며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준다. 또한 조희진(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감과 낙관적 태도가 무용지속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유나(2019)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빠른 회복을 한다면 무용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수혁(2021)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지속 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지속하는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시사한다. 김알찬, 윤원정, 송지섭(2021)의 연구에서 운동을 통하여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간접적인 결과가 일치한다.

무용과 같은 활동을 하거나 관련된 일을 할 경우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는데, 긍정적인 사고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기관리를 통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 자아를 멀리하여 지속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와 낙관적인 태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

지 않으며 해내려는 자신감을 가져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연 관람으로 내적인 자극을 받아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좋으며, 지속적인 경험이 실력 향상을 연결되어 보람과 자신감을 느끼는 상태를 가져야 하며, 무대 경험과 그 경험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지속할 의지를 높여야 한다. 또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경험하고 부딪혀야 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오는 피드백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실용무용 전공자의 진로탐색을 통하여 진로의 효과와 자아존중감을 높여 중도탈락을 줄이고 무용지속의도를 높이는데 기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하여 실용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 부를 제외한 201 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 경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 간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진로탐색에서 직업에 대한 탐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들 간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Scheffe 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주요 변수들 간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Scheffe 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진로탐색에서 직업에 대한 탐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탐색 중 직업에 대한 탐색은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에 대한 탐색은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탐색 중 직업에 대한 탐색, 자신에 대한 탐색은 무용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용무용전공자의 자아존중감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중 긍정적 자아, 부정적 자아는 무용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실용무용 관련 예술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더 넓은 범위의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실용무용이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자연스러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연구대상자를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지역별, 대상별 등의 수준과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세분화된 지역의 연구 대상자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진로탐색을 통한 실용무용전공자들의 진로의 방향성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탐색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연구 대상자의 이해를 위하여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더 넓은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옥(2016). **협동학습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2016).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동기기간의 구조관계 규명:진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2), 27-47.
- 권영선(2018). **학생축구선수들의 자아존중감이 운동스트레스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알찬, 윤원정, 송진섭(2021). 태권도 수련을 통한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운동지속 관계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9(1), 207-220.
- 김연미(2020).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애(2002). **운동참여, 운동중단 및 운동지속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연, 이기학(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충기(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 배영사.
- 김충기(1995). 교육개혁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 진로의 방향.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4**, 60-78.
- 김혜지(2016). **무용 지도자의 지도 유형이 학습 의욕과 무용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경(2009). **고등학교 배구 선수의 학업참여에 따른 진로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진(2016). 대학 무용수들의 심리적 요인이 무용지속과 중도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노유민(2014). 스트릿 댄스의 대중화 활성화방안 - 댄싱 9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 도래미, 김승일(2017). 청소년의 즐거운 삶 : 무용진로탐색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17(2), 25-32.
- 문혜경(2016).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동임(2008). 중학교 ‘산업과 진로’단원에 활용할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진(2013). 스트릿 댄스의 교육 현황 조사 및 인식도조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송난영(2001). 무용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채룡(2015). 실용무용전공 대학생의 진학요인과 적응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안지영(2015).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무용정서 및 무용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안창용(2020). 실용무용 전공학생들의 졸업 후 직업인식에 대한 질적 접근 - 실용무용과 전공학생들을 중심으로 -. 대한무용학회논문, 78(4), 80-94.
- 유은숙(2003). 진로탐색 프로그램 적용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정어(2011). 여성 생활무용 참여의 재미요인, 운동몰입 및 참여지속의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미영(2003). 부적응학생에 대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건미(2008).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유형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건미(2017). 순수무용 전공학생들의 생활무용수업 참가가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6), 137-152.
- 이광옥(2012). 체육전공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및 운동지속 의도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3), 105-116.
- 이동윤(2021).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자기 효능감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박사 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 이수혁(2021). 아이스하키 스포츠클럽 참여 초등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자아 존중감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나(2019). 무용전공자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 이해성(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 학회지**, 14(1), 109-120.
- 이준철(2010). 무용전공자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이 자기관리를 통한 자 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이진주(2017).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용전공대학생의 무용몰입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원.
- 이향주(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민(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활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현정(2007).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 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현주(2001).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 심리연구**, 15(3), 257-280.

- 장두레(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환경요인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상현(2019). 스트릿 댄스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콘텐츠 조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 정지숙(2008).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정지원(2016). 실용무용 전공자들의 학업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조성심(2010).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생태체계 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대학원.
- 조희진(2013).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 간 구조검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천성욱(2017). 위너스 팝핀댄스 크루의 활동이 국내 팝핀댄스 발전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 최예림(2015). 체조선수의 자아탄력성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 관리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용원(2020). 평생교육원 실용무용 교육서비스품질과 진로교육이 전공자의 학업지속의향, 지속적 대화참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최용원, 유화정(2023). 국내 스트릿댄스 교육의 변화 흐름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22(4), 79-91.
- 탁은정(2005). 대학운동선수의 역할수행의지와 사회적응기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Atwater,R.W.(1992). West basin water reclamation program. Specialt conference series, 6,483-48.
- Branden, N.(1992),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 역(1995),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 Coopersmith,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sisco:W.H
Freman.
- Mead,R.(1974). The promise of cognitive psychology. Sanfrancisco:W.H.Fredom,
p.228.
- Rosenberg,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Basic Books.
- Shaw,M.E.&Costanzo,P.R.(1982). The ori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a
Graw Hil, p.324.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실용무용전공자의 진로탐색이 자아존중감과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습니다.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통계법 제 31 조와 제 33 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는 답이 없으므로 내용을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솔직한 의견과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2023 년 03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연구자 한다솜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3 세 ② 24~27 세 ③ 28 세 이상

3. 귀하의 경력은 몇 년입니까?

- ① 3년 이내 ② 3 - 6년 ③ 6년 이상

다음은 진로탐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업에 대한 탐색	1.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지식이나 정보를 얻었다.	1	2	3	4	5
	3. 관심 있는 분야를 소개하는 매체들을 찾아볼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2	3	4	5
자신에 대한 탐색	5.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1	2	3	4	5
	6.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다.	1	2	3	4	5
	7. 주변 사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	2	3	4	5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만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3.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부정적 자아	5. 가끔 나는 옳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가끔 나는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7. 나는 자존심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	1	2	3	4	5
	8. 때때로 나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다음은 무용지속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실용무용에 관한 지식이 많다.	1	2	3	4	5
2. 실용무용은 나에게 좋은 신념을 갖게 해준다.	1	2	3	4	5
3. 나는 실용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1	2	3	4	5
4. 나는 체력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5. 나는 실용무용 기술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주변에 실용무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노력하면 실력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2	3	4	5